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이 계 정*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자기에의 내현적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한 인터넷 과다사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생 234명과 인터넷 블로그 이용자 80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보상경험 척도,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orean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KIAS-40)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일원변량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인터넷 과다사용과 인터넷 보상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와 인터넷 보상경험의 관련성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하위요인 중 내현적 자기에가 보이는 특성 즉, '회피/고립'과 '비주장성/소심'의 측면이 인터넷 보상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도 증명되었다. 내현적 자기에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에, 인터넷 보상경험, 인터넷 과다사용, 대인관계

* 교신저자 : 이계정,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el : 02-705-8211, E-mail : kjmylove@empal.com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물질적 진보의 방향에 따라 부정 혹은 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상담은 인류의 역사를 이뤄낸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된 현실과 삶의 주체인 인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상담의 전략 및 접근 방식은 사회문화적 흐름과 더불어 그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Lasch(1979/1989)는 모든 사회는 개인에서나 성격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의 문화-그것의 규범, 기초적 전제, 조직적인 체험 형태를 재생한다고 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자기애적 성격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는 심리적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며,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독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징(최종순, 2003)은 자기애적 성격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자기애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부적응을 치유하는 상담 장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양식 또한 바꿔놓았다. 인터넷은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사이버 공간', '정보화 시대'라는 용어를 이론을 뛰어넘어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들이 점차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황상민·한규석, 1999). 인터넷은 어느 순

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Patricia M. Wallace, 1999/2001), 그에 따른 개인생활의 변화는 다양한 심리적 일탈을 경험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개인의 성격특성을 '자기애'라고 한다면,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인터넷'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개념은 때로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즉,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나 자기애적 성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상담 장면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부적응적 특성이 '인터넷'이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애의 특성 중 대인관계에서 회피·고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을 현대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부적응의 원인으로 보고 이것이 인터넷 과다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증명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인터넷 중독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애의 개념은 Freud(1914/1953)가 그의 저서, "On Narcissism"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Freud를 시작으로 한 정신분석이론과 달리 Millon(1996)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원인을 부모가 아이를 일관되게 과대평가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으로도 제안되었고(Kohut, 1977), 경험적인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or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는 DSM-IV

에 제시된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잘 부합된다. 즉,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된 특징이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는 겉으로는 소위 자기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자기에적인 성격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 한수정, 2002). 이들은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

외현적 자기에와 구분되는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밝힌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남운(2001)이 번안한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된 이인숙(2002)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전체 및 하위요인(평가예민성, 자기몰입)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은 MMPI K척도상의 방어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의 성격성향이 대인불안을 높여 대인관계에서의 주관적 불편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내현적 자기에의 낮은 방어성은 자기비판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외현적 ·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을 밝힌 박세란(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여 보다 병리적인 성격장애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공격성이 높았다. 이와 비슷한 연구(백승혜, 2004)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에 집단에 비하여 적대감 및 분노경험수준이 높은 동시에 분노억압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기에의 하위유형별 대인관계 특성을 밝힌 강연우(200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가 회피적이며 순종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병리적인 자기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험한 국외의 연구를 보면(Dickinson, K. A., 2001), 웅대한 자기에와 취약한 자기에로 나눠 전자는 초기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애착을 부인하고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정하는 반면, 후자의 자기에 집단은 두려움 애착을 보고하고 높은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였다. 내현적 자기에와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BDD)의 관련성을 지적한 연구에서(Paley, S. A., 2000),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미국 현대인들의 양상을 지적하면서 신체변형장애가 내현적 자기에의 수치심 및 원초적 거대자기(archaic-grandiose self) 등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개념적, 임상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인불안이 높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클 것이다. 둘째, 적대감과 분노경험수준이 높고 분노의 억압도 높아 내재된 공격성이 클 것이다. 셋째, 방어성이 낮아 자기 비판적이며 순종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보일 것이다. 넷째, 지나친 평가예민성이나 내재된 자기과시욕구는 특수한 행동장애 및 신체장애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경험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송원영(1998)의 연구에서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 효능감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검증되었으며, 김종범(2000)은 인터넷 이용 행동에 외로움 해소 및 대인관계에 대한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송명준(2000)은 실험실에서의 주제 토론을 통해 인터넷 중독자와 비중독자로 하여금 온라인과 면대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서로 비교한 결과,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더 큰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 의존집단과 비의존집단 간의 심리특성을 대인예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연구한 임효정(2000)은 두 집단 간 대인예민성과 우울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사이버 의존자들이 비의존자들에 비해 더 우울하고 타인 앞에서 더 불안하며 부적절감을 더 빈번하게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밖에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한 양돈규(2003)는 인터넷이 또래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질적인 측면 즉, 대인관계만족도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 집단을 대인관계 위주의 집단과 비대인관계 위주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리특성을 연구한 논문(김종범, 2000)에 따르면 대인관계 위주의 중독집단이 비대인관계 위주의 중독집단에 비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현실적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 즉 외로움을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영역을 넓혀준 블로그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김인경, 2005) 그 이용 동기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정보 공유 및 흥미요인보다는 남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터넷이 대인관계의 확장 및 지속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김인경, 2005; 김지현, 2002; 하미영, 2003). 그러나 이는 현실적 대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의 도구적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인터넷이 현실의 부적응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인터넷 과다사용자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자의 특징과 많은 부분 관련성을 보인다. 우선 심리특성에 있어 우울하고 대인예민성이 높은 것은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와 다르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격특성이 사이버 의존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임효정, 2000)는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현실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효능감 및 만족도가 낮고(송명준, 2000; 송원영, 1998; 양돈규, 2003), 대인관계 위주의 인터넷 사용집단이 현실관계에서 보다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김종범, 2000) 등은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자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높아 회피적이며 순응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보인다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온라인 및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에서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집단의 경우, 온라인 상황보

다 대면 상황에서 더 과시적이며, 자기도취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낸다고 밝혀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간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적인 변인이 아닌, 인터넷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개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된 핵심 요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보상경험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장재홍, 유태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인터넷 보상경험은 인터넷을 통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한 경험, 스트레스를 잊어버렸던 경험, 심심할 때 즐거움을 찾았던 주관적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다(장재홍, 신효정, 2003). 장재홍 등(2002)은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로 집단간 인터넷 중독지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밝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넷 보상경험이 그 중재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의 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대인관계 특성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인터넷 과다사용 및 인터넷 보상경험이 증가할 것이다.
2.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회피/고립적이며 비주장적이고 소심한 대인관계 특성을 보일 것이다.
3.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보상경험을 증

가시켜 결과적으로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서울시 J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34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각광받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의 인터넷 이용 동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상은 청소년 및 대학(원)생으로 제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랜덤 블로그 즉,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블로그를 방문하여 2주간 350통의 쪽지를 보냈으며 쪽지를 받은 사람들은 연구자의 블로그를 통해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다시 연구자의 이메일로 회송토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천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은화 10냥)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각각 분석한 후 통합된 자료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터넷 사용시간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터넷 사용시간의 분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272	86.6
	여	42	13.4
학력	중학생	8	2.5
	고등학생	277	88.2
	대학(원)생	29	9.2
나이	13-18세	283	90.1
	19-25세	24	7.8
	26세이상	7	2.1
인터넷 사용시간 /주	1-10시간	156	49.7
	11-30시간	132	42
	31-99시간	26	8.3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2002)가 개발한 척도로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의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2002)는 CNS의 요인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을 5개로 분류하였다.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가지 하위요인 중 요인1의 목표불안정, 요인4의 과민/취약성, 요인5의 소심/자신감 부족을 내현적 자기에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α)는 .90,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α)는 요인의 순서대로 .89, .81, .74,

.80, .77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척도가 .91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척도(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검사)

인터넷 과다사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척도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표준화 및 타당화 과정까지 거친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의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검사를 사용하였다. 김청택 등(2002)은 척도의 개발을 위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는데,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10문항으로 제작된 예비검사 질문지를 서울시 중·고교생 3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사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위 척도는 4점 척도로 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

고한 평가를 위해 5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α)는 중고등학생 표집의 경우 .96으로 보고되었다(천명재, 200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상경험 척도

인터넷 사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제작한 Web을 활용한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개발 연구(임은미, 김태성, 김형수, 이영선, 박정민, 2000)에서 개발한 인터넷/PC 과다사용문제 자기진단 검사에서 사용된 인터넷/PC 과다사용 문제 요인 문항 중 인터넷 사용을 통해 경험하는 만족에 해당하는 문항을 뽑아 제작(장재홍 등, 2002)한 것이다. 총 22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을 통해 경험하는 만족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α)는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orean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KIAS-40)

Sullivan 등의 영향을 받아 Leary가 제안한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입각하여 정남운(2004)이 개발한 척도이다. Leary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통해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이라는 두 차원을 가진 평면 위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 있게 원형으로 배열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에 기초한 대인관계 원형은 현재까지 모두 네 종류가 제안되었다. 한국에서는 64문항으로 구성된 Wiggins(1979, 1982)의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Revised version; IAS-R)를 번안하여 대학생들에게 사용한 바 있으나, 이 척도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부합되

지 않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정남운, 2001b) 정남운(2004)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형용사 목록을 새로 만들어 원형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문항들을 선별하여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IAS-40)를 구성하였다. 자기확신/주장, 비판/통제, 냉담/의심, 회피/고립, 비주장/소심, 순응/양보, 온화/친절, 사교성/쾌활의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내적합치도(α)는 요인의 순서대로 .89, .85, .79, .80, .87, .83, .90, .90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척도가 .79로 나타났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8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방법

내현적 자기애 척도, 인터넷 보상경험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총 152문항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보상경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특성이 인터넷 보상경험의 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dow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보상경험 간의 상관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 및 인터넷 과다사용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설문조사 방법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수행하였으며 통합된 자료로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피험자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보상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22, p<.001$).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과다사용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77, p<.001$). 또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 분석 결과, 과민/취약성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인터넷 보상경험($r=.408, p<.001$) 및 인터넷 과다사용($r=.402, p<.001$)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다. 과민/취약성 요인은 CNS의 하위요인 중 외현적 자기애와 구분되는 내

현적 자기애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애의 하위유형 중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간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 대인관계 특성의 차이

앞선 분석을 통해 증명된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 대인관계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존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대인관계 특성과 인터넷 보상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터넷 보상경험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각 집단간 대인관계 성격특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의 8개의

표 2. 내현적자기애, 인터넷보상경험, 인터넷과다사용 간의 상관분석 (N=314)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보상경험	내현적 자기애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인터넷과다사용	1							
인터넷보상경험	.747***	1						
내현적자기애	.477***	.522***	1					
1요인	.353***	.404***	.693***	1				
2요인	.326***	.344***	.703***	.289***	1			
3요인	.299***	.364***	.695***	.342***	.473***	1		
4요인	.402***	.408***	.844***	.433***	.500***	.454***	1	
5요인	.360***	.384***	.709***	.422***	.279***	.298***	.661***	1

*** $p<.001$

주. 1요인: 목표불안정, 2요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3요인: 착취/자기중심성, 4요인: 과민/취약성, 5요인: 소심/자신감 부족

하위요인 중 회피/고립, 비주장/소심의 두 가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회피/고립에 있어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_{(1,313)}=17.74, p<.05$), 사후검증(Scheffe)결과, 인터넷 보상경험 상 집단이 인터넷 보상경험 하 집단(평균차=5.49, $p<.05$)보다 유의미하게 회피/고립의 대인관계 특성이 높았다. 두 번째, 비주장/소심의 경우에도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_{(1,313)}=21.94, p<.05$), 사후검증(Scheffe)결과, 인터넷 보상경험 상 집단이 인터넷 보상경험 하 집단(평균차=5.93, $p<.05$)보다 유의미하게 비주장/소심의 대인관계 특성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로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행동사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강연우, 2004)에서 ‘비주장적이다($r=.452, p<.01$)’, ‘소심하다($r=.445, p<.01$)’, ‘회피적이다($r=.381, p<.01$)’가 내현적 자기에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자가 현실적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인터넷을 통한 만족으로 보상한다는 연구문제를 증명할 수 있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의 관계를 전반적인 상관관계 및 대인관계 특성의 유사성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에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터넷 보상경험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예측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된 후에 의미 있게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앞서 상관분석을 토대로 검증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는 인터넷 과다사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보상경험과도 유의

표 3.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별 대인관계 성격특성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회피/고립	보상경험 상	113	20.05	7.01	17.74*
	보상경험 중	102	18.28	6.25	
	보상경험 하	99	14.55	7.07	
비주장/소심	보상경험 상	113	21.89	6.49	21.94*
	보상경험 중	102	19.56	6.59	
	보상경험 하	99	15.95	6.51	

* $p<.05$

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인터넷 보상경험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 인터넷 과다사용의 세 변인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네 번째 조건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측변인만 포함했을 때와 예측변인과 가정된 매개변인을 함께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만을 포함하였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β 값이 .477이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β 값이 .120으로 그 값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인터넷 보상경험이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 보상경험이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보상경험이 통제되었음에도 내현적 자기애의 설명력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인터넷 보상경험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과다사용 변량의 22.8%를 설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에 인터넷 보상경험을 포함한 모형은 인터넷 과다사용 변량의 56.8%를 설명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인터넷 사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 중 DSM-IV의 진단 준거를 반영하는 외현적 자기애의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았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자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와 억압된 공격성 등을 인터넷에 몰입하여 해소할 것

표 4.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β	t
인터넷 과다사용	1	내현적 자기애	.477	9.593***
		$R^2 = .228$		$F_{(1,312)} = 92.023***$
	2	내현적 자기애	.120	2.758**
		인터넷 보상경험	.684	15.669***
		$R^2 = .568 \quad \Delta R^2 = .341$	$F_{(2,311)} = 204.823***$	

** $p < .01$ *** $p < .001$

으로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314명의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상관분석 결과, CNS로 측정된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사용을 통한 주관적 만족경험을 의미하는 인터넷 보상경험 및 인터넷 과다사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된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특성 중 회피/고립, 비주장/소심의 요인이 인터넷 보상경험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대인관계 특성이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보상경험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과의 관계에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보상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Kohut은 자기애적 결손을 ‘행동’으로 채우려는 경우를 자기애적 행동장애라 하였다. 비행, 성도착, 중독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자기구조의 결손을 채워줄 자기대상의 대치물로서 약물이나 음식 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간의 관계는 ‘인터넷 중독’이 자기애적 행동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Kohut이 언급한 내현적 자기애, 즉 억압된 거대자기로 인해 전반적인 심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무기력하며 낮은 자존감, 모호한 우울감, 자발성의 부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애 성격성향자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자기애적 갈망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찍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 Young과 Rogers(1997a), Gunn(1998) 등은 우울과 불안, 내성적인 성격 특성 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범, 2000). 이러한 심리 특성과 성격성향은 자기애의 이론적 연구에서 밝혀진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의 두 가지 주된 흐름인 ‘자기애’와 ‘인터넷’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역기능적 측면과 그에 따른 상담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의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적응의 측면에서 대인관계 특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터넷 보상경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회피/고립과 비주장/소심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보상경험의 역기능적 측면을 단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따라서 취약한 자기애의 특성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라는 부적응적 양상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였다. 자기애 관련 연구는 DSM-III에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범주를 추가한 이래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 중, 그 성격적인 측면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 특히 남자 고등학생으로 편중되어있었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블로그 이용집단과 일반 이용자와의 비교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분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피험자 수가 동일하지 않아 집단 간 비교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통합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인터넷 이용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긴 시간(약 45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못했기에 고등학생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측정 시 그 타당도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심리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채 이론적 배경에 의존한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하위 영역도 세분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변인들도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라는 개인적 성격변인만을 고려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를 통하여 첫째,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심리 특성적 변인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뿐만 아니라 외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인터넷 사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자기애의 하위유형별 비교연구를 통해 자기애와 관련된 기존 이론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인터넷이 더욱 발달할 미래 사회에서 자기애적 성격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관하여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작업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본 연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온라인 대인관계 성향과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인경 (2005). 블로그 이용을 통한 대인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용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1997).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연구, 32(1), 43-59.
- 김종범 (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현철 (2004). 블로그 이용동기와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길 (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요소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2004).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출 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준 (2000). 인터넷 중독자의 온라인 및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효정 (2000). 사이버 의존 집단과 비의존 집단간의 심리특성 연구: 대인예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신호정 (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651-672.
- 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 2002 청소년 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 37-51.
- 천명재 (2004). 인터넷 이용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 중독자 분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끼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민·한규석 (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서울: 박영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Dickinson, K. A. (2001).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Hendin, H. M. (2001). *Narcissism, motives, and emotions: An exploration of the narcissistic paradox*.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SA.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c1991). Freud'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전은 1979에 출판)
- Mill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N.Y.: Wiley.
- Paley, S. A. (2000). *Body Dysmorphic Disorder: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and an investigation of its relationship to covert narcissism*. PsyD.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Berkeley, Alabama. USA.
- Patricia, M. Wallace (2001). 인터넷 심리학. (황상민 역). 서울: 예코리브르. (원전은 1999에 출판)
- Rathvon, N., & Holmstor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원 고 접 수 일 : 2006. 4. 8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2. 12

게 재 결 정 일 : 2007. 2. 2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on Excessive Internet Use

Kye-Jung Lee

Nam-Woon Chung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excessive internet use. It also explored the role of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excessive internet use. A total of 234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80 Internet Blog users completed Covert Narcissism,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sca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vert narcissism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and excessive internet us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mediates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excessive internet use.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excessive internet use, internet reinforcement exper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